

담장 없는 안식처로 이웃과 소통하는 삼청교회 어린이도서관

Wesleyan 桶, 2009. 가을, 제3호, 웨슬리출판문화원

조그만 의자에 앉아 그림책을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듭니다. 그림 더 잘 보겠다고 머리를 요리조리 움직여가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의 의자」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은 한 소녀와 엄마, 할머니가 이웃의 도움으로 다시 살림을 시작하고 돈을 모아 마침내 꿈꾸어 오던 편안한 안락의자를 사게 됩니다. 이제 이 가족은 그 의자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꿈을 꿀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삼청동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래도록 앉아 쉬고 싶은 나무 의자가 놓인 아름다운 쉼터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교회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니 1층에 '꿈과 쉼'이라는 문패가 붙어있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9,000권에 이르는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누구든지 들어와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의자가 여기저기 놓여있습니다. 삼청교회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곳에서는 일반학교 못지않은 수준의 다양한 체험학습과 문화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아이들의 작품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도서관 아래층에는 맛있는 커피와 함께 읽을거리를 즐기는 문화선교센터 카페 '엔'(En)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길을 따라 삼청교회 어린이도서관을 드나들다가 아예 교회에 출석하게 된 가족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교회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기독교서적만 있냐고 묻는 이도 있었고, 교회에 다녀야만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 묻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삼청교회는 일찍이 교회 담을 부수고 쉼터와 북카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므로 삼청동 거리를 찾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교회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 준 문희수 담임목사님의 열린 생각과 끊임없는 노력에서 복음전파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삼청교회의 '문화코드를 활용한 대중과의 복음소통'이 감리교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문서선교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설교내용을 담은 소책자를 출판하는 등 문서선교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a penny a piece' 어디서나 쉽게 사서 읽고 또 돌려보았던 그 책들이,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책을 통해 감리교 교리와 복음을 전파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삼청교회는 누구나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나누므로 지역사회의 주민과 대중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삼청교회는 마음대로 앉아 편히 쉴 수 있는 '엄마의 의자'를 담이 없는 마당에 꺼내놓으므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엄마의 의자'에서 편안한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의 의자'에서 꿈을 꾸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담 너머를 수없이 지나다닙니다. 참된 쉼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삼청교회처럼 의자를 내어주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경집사(수표교교회)